

수익노선 경쟁입찰·업체 구조조정 통해 재정 지원 줄여야

세금먹는 하마 버스준공영제, 신안 완전공영제서 해법 찾는다

‘밑빠진 독에 혈세 퍼붓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편의성 증진 등의 성과에도,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 보조금을 쏟아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나온다. 버스 업체들의 경영 개선 및 자구노력에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되는데,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준공영제 뿐 아니다. 준공영제가 아닌, 전남지역 시·군별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금도 매년 수백억원에 달한다.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여주며, 수익노선의 경쟁 입찰제, 오지노선의 완전공영제, 업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지원 규모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운송수입·손남은 주는데 지역민 부담은 더 늘어=광주지역 10개 시내버스업체들의 지난해 운송 원가는 1964억원, 운송수입은 1325억원이다. 이 업체들의 적자는 639억원에 달했다. 적자분은 광주시가

전액 지원했다. 올해는 더하다. 광주시는 올해 버스업체들의 운송원가를 2040억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운송수입은 1280억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자 규모만 716억원에 이른다.

특히 인건비 인상이 적자 규모를 키우는 데 한몫을 했다. 버스기사를 비롯한 사장·임원·사무직원 등 버스업체 인건비는 1280억원(2017년)에서 지난해 1340억원 수준으로 뛰었고 올 들어서도 1396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스기사가 아닌, 관리직원 인건비만 75억원(2015년 기준)이 넘었고 임원 인건비도 12억원(2015년 기준)을 웃돌았다.

전체 인건비 규모도 1019억(2012년)→1046억(2013년)→1075억(2014년)→1159억(2015년)→1239억(2016년) 등으로 매년 27억~84억원 상승했다. 연료비(2016년 268억→2017년 274억→2018년 270억), 정비비(2016년 56억→2018년 61억→2019년 62억) 등에 견주 상승폭도 크다.

인건비·운영비 등 매년 수백억 적자... 광주시 전액 부담
신안, 공무원이 버스 운행 업무... 인건비 등 대폭 절감
지역민 참여 노선 결정으로 운행횟수 늘고 이용불편 줄여

반면, 운송수입은 1308억(2013년)→1296억(2014년)→1261억(2015년) 등으로 줄었다가 요즘 인상이므로 2016년 1308억원, 2017년 1355억원까지 늘더니 지난해 1325억원, 올해 1280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결국 승객 수 감소 등으로 운송 수입은 감소하는데도 지원금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광주시가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업체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노선 조정·배차간격, 서비스 등 일부 권한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경영 합리화를 위한 버스회사들의 노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만한 대목이다.

버스업체의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광주지역 한 버스회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적자가 볼 때도 뺀 버

스업체가 당기순이익(53억원)의 7.54%(4억)를 배당금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줄이고 주민 만족도 높인 ‘완전공영제’ 주목=신안군의 ‘완전공영제’는 인근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러 찾아올 정도로 주목받는 서비스다. 신안군은 전 행정구역이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군민들의 이동을 통한 상권 활성화, 고령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 증진, 버스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지난 2007년 완전공영제 실시를 결정했다.

완전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기존 군내버스 1대당 영입보상비로 6억1300만원을 부담하고 실적보상 7500만원, 차량인수비 1억7500만원 등 8억6300만원을 들이는 등 열악한 살림살이에 189억8600만원의 대규모 예산을 지출한 건 부담이었다.

하지만 운영·관리를 군이 맡아 지출 비

용을 최소화했다. 재정지원금 규모도 25억 1400만원(2018년)에서 올해 27억3600만원으로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해남의 재정지원금 규모(36대)가 22억, 고흥(49대) 49억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효율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대당 연간 운송원가는 5500만원(1일 대당 운송원가 14만 8890원)이다. 목포·광양·순천·나주·여수 등 5개 시의 1일 대당 운송원가는 33만 1930원 수준이다.

광주시와 단순 비교해도 전체 1034대의 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지원금 규모가 올해 716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점, 대형 CNG 버스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대당 운송원가가 2억 2780만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신안군 완전공영제의 경우 읍·면 사무소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맡다보니 버스 기사를 제외한 사장·임원·사무직원 등을 위한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65세 이상 지역민들은 무료로 이용하다보니 연간 운송수익이 7000만~8000만원에 불과하지만 간접 관리비용이 없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 운영이 가

능하다는 게 신안군 설명이다. 이장 등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공영버스 운영협의회’가 직접 버스 노선과 시간을 정하다보니 오지·벽지 노선으로 인한 불편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완전공영제 이후 22대의 버스가 54대로 늘었고 22명이던 버스 기사도 64명으로 3배 가까이 많아지면서 운행 횟수도 하루 4회에서 7회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야간 운항에 맞춰 공영버스를 증차하고 버스기사를 추가로 채용했다. 이리다보니 ‘완전공영제’ 시행 전 20만명 수준이던 신안지역 버스 이용객은 지난해에는 67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전남에서는 전남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버스업체에 대해 재정지원금 외에도 시·군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피자기식’ 예산 투입 대신,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 관광공, 목포서 사업설명회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7월 열리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관광사업설명회를 연다.

공사는 “오는 23~24일 목포 상그리아비치 호텔에서 광주·전남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12~28일)와 마스터즈대회(8월5일~18일)를 계기로 광주·전남의 연계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이날 참석한 광주·전남 지자체,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등 지역 관광 관계자 100여 명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마케팅 협력을 위한 상담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 분기별로 관광 관련 주요 이슈가 있는 지자체에서 사업설명회를 추진해 현장 중심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태호 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는 “관광공사의 주요사업들을 지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 지역이 국내 및 해외 관광객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도록 관광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벌써 10년... 여전히 그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을 이틀 앞둔 21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시민들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친환경양식어업 사업에 70억 국비 확보... 전국 최다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의 ‘2019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21일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비 130억원 가운데 53%인 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은 기르는 어

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며, 수산종자 및 양식시설을 친환경·첨단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약 한 달간의 모집 기간을 통해 전국 5개 시도 7개 과제를 신청받아 해양수산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전남지역 선정 과제는 50억원 규모의 친환경 해수순환여과식 대형 전복 육상양식장, 20억원 규모의 첨단스마트 순환여과 넓치양식시스템 구축 등 2가지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전남 양식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 켈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 탄력

전남도, 조성계획 승인... 2025년까지 복합관광단지로

전남도가 여수시에서 신청한 ‘여수 켈린지파크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을 21일 승인했다.

‘여수 켈린지파크 관광단지’는 지난 2015년 전남도·여수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여수켈린지파크(주)가 개발에 나선다.

화양면 나진리 약 51만㎡ 부지에 2025년까지 2308억원 투자해 복합레저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1단계 사업인 켈린지 파크, 켈린지코스 15km, 루지 2개 코스 1.9km, 질러인 8개 코스 1.7km, 리프트 273m를 운송요약시설지구로 조성한다.

매년 단계별로 호텔 3개소, 풀빌라 4개소, 컨벤션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전액 민간사업으로 조성하게 된다.

루지는 특별한 기계장치나 사람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순전히 트랙의 경사만

을 이용해 달리는 특수 제작 카트(썰매)다.

전남도는 여수 켈린지파크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6607개의 고용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최근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가족단위 여행이 늘고, 루지·질러인 등 짜릿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관광객도 많아 ‘여수 켈린지파크 관광단지’가 그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라며 “특히 주차장(507대) 전체를 지하에 배치하고, 단지면적의 55%를 녹지 또는 원형녹지로 보존하는 등 자연경관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개발할 계획이어서 친환경 관광개발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야

▶ 단기 투자 최고의 물건임
▶ 인접 맹지도 15만~20만원씩매매됨
▶ 대학교,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함
▶ 992㎡(300P), 지분 매매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사정상 급매함, 4,500만원(일시불)
H.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계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교 환

- 광안구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 운암동 아파트지하 205㎡ 은행 8천 참고·사무실적합 1억9천

투자·매도·교환

- 광안구 북동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 차량인입가 1억6천
- 광안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즙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완도·광주간 고속도 영암 톨게이트서 금정면 방향 1km 4028㎡ 다용도 4억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군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점 토지 155㎡ 건물 263㎡ 4억
- 충장로 4기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84㎡ 식당과 28실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가도로 4323㎡ 유통시설·참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성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펜션좋은 7억2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11607㎡ 요양시설·전원주택 적합 4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펜션·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일부는 광주 원룸부지와 교환 가능 4억 7천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임야 단독섬

▶ 바로합니다
▶ 지분물건 환영
문의. 010-6834-7400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 지

- 광안구 장수동, 담, 자연녹지, 마을집,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매매가 14억
- 남평읍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임야, 11만㎡,우사4동, 매12억
- 무안 현경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해남 산이면 계획관리지역, 대지 17,000㎡ 매15억
- 강진 성전면 상업,준.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 2차선도로접 매1억1천만
- 영암 신북면 11,000㎡ 과수원 2차선 도로 접 매 4억3천

상 가

- 백암동 2층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원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대지132㎡ 보2500만,월160만 포함, 안집체외,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 아파트, 1층상가, 대로접, 330㎡,은행4억 포함, 승계가,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전,임야,1만㎡ 사찰건물최고,납골당 4동, 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동 중월리 대지4,200㎡, 모델4층2층식당펜션,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외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올리모델링 매 1억4천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 중 4층 엘리베이터 방2 거실 큰 전세 8천만 포함 매1억3천만
- 소태동 무등산골드클래스, 112㎡, 6층 급매, 매 5억
- 월산동 우방아이유셀 115㎡, 9층, 매3억 8천만

상담전화 ☎ 010-2314-8567